

<萬憤歌>의 內容的 考察*

柳年錫**

<차례>

- I. 序論
- II. 創作背景
- III. 作品構造
- IV. 作家意識
- V. 結論

I. 序論

曹偉의 <만분가>는 작자가 士大夫層이라는 것과 士禍나 黨爭의 배경에서 形成되고, 그리고 流配라는 상황에서 창작되었다는 사실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일반 戀君之詞의 주류로 인식되었으나, 작품의 情況으로 보아 단순히 戀君型詩歌라고 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김주곤(1987), 최상은(1988), 박일용(1992) 등도 지적하였듯이, <만분가>는 제목에서부터 현실에 대한 ‘發憤의 情’을 아울러 표출하는 流配歌辭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품의 구조분석과, 작자의 생애, 사회적 배경, 작품 내용 등을 깊이 있게 고찰하려고 한다. 특히 忠臣戀主之詞의 성격과 함께 작품의 제목에서도 나타났듯이 유배현실에 대한 ‘萬憤’의 정서가 어떻게 함유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 작품의 정서적 표출은 다른 연군시가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런 내용에 대하여 심층적 고찰을 통하여 내용연구의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流配歌辭에 대한 연구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는데 연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중심내용은 작가의식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형성된 작자의 삶과 사회의 인식의 고찰이 필수적이며, 그 결과로 이뤄진 작품구성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먼저 창작배경에서는 작자의 삶이 어떠했으며, 시대적 환경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특히 절박한 유배의 입장에 서게된 직접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작품구조는 기왕의 선학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작품의 짜임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 보려고 한다. 또한 작가의 의식세계에 관해서는 기존의 충신연구적 입장에서보다는 성종시대에 양성된 많은 사림과 선비들의 수난과 몰락을 예감하고 체념과 비탄에 빠진 작자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하반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순천대학교

II. 創作背景

<만분가>의 창작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작품을 지을 수 있는 개인적 소양과 그 시대적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온당하리라 보아 매계의 文名과 戊午士禍, 그리고 配所生活를 고찰하고자 한다.

매계의 문명은 탁월하였으며 어려서부터 詩文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5세 때 庶弟인 適庵 曹伸과 함께 학문의 길에 나서게 되었으며, 7세에 이미 詩에 능하다는 칭찬을 받을 만큼 일찍 才氣를 드러냈던 것이다. 10세에는 매형 金宗直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고, 11세에는 영의정을 지낸 종숙 錫門의 家塾에서 『소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17세된 1470년(성종원년)에 강릉에서 독서하다가 서울로 올라왔다. 매계는 18세(성종2년) 되던 해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하여 生員, 進士, 初試 등에 모두 장원을 하여 남들을 놀라게 했다. 다음 해에는 司馬覆試에, 그리고 21세 때는 式年試 丙科로 급제하였으며, 그 후에도 적암과 能如寺에서 독서하였다. 23세(성종7년)에는 賜暇讀書文臣의 영예를 얻었다.

매계는 그 風儀가 빼어났으며, 가슴에 품은 생각이 넓어서 선비의 모범으로 一世에 이름이 높았다는 것은 史錄으로 알려진 바이며,¹⁾ 특히 문장으로 성종의 총애를 입은 바가 자못 융승하였다. 성종이 일찍이 홍문관·예문관의 堂下官과 主書들을 仁政殿에 불러모아 <東郊觀獵排律三十韻>과 <賀親行釋奠頌>을 짓게 하였는데, 그 때 매계의 頌이 으뜸이었고, 또 金訥과 함께 <仁政殿早朝律詩>를 짓게 하여 모두 合格됨으로 駿馬 1필씩을 받은 적도 있었다²⁾고 한다.

그리고 庶弟 伸의 기록은 더욱 상세히 적고 있는데, 매계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守舍 자리를 청하니, 부득이 제수하면서 글을 내려 말하기를 그대가 애초 文章으로 출사했으니 만큼 나의 거처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이로되 가정적인 사정을 보아서 부득이 외직에 보내니 개탄할 따름이라 하면서 그곳 감사에게 명하여 매계의 老親에게 선물을 하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草間 權文海도 역시 매계가 문학으로써 성종의 獎遇를 크게 입었다³⁾고 기록하였다.

또한 매계는 『杜詩諺解』의 번역과 序文을 쓴 일도 유명하지만, 그의 문명은 세상에 널리 퍼져 退溪와 高峰과 같은 이들도 매계에 관한 臺의 扁額이나 記文을 흔쾌히 썼다. 뿐만 아니라 점필재 김종직은 매계를 가르치면서, 내가 태허와 강론함에 강하가 터진 것 같았으니 태허는 나의 스승이다(吾與太虛講論 若決江河 太虛眞我師也)라고 칭찬하였다. 또 虛白亭 洪貴達은 매계의 시문은 구름이 내불고 무지개를 토하는 만장의 문광(嘘雲吐虹 萬丈文光)이라 하였고, 그가 쓴 墓碑銘에도 ‘有能詩聲神氣’라고 극찬을 하였다. 尤菴 宋時烈도 매계의 문장과 도학에 대하여, 여사로 문장을 했으나 왕조를 빛냈고, 경술과 논사는 스스로 기와 교요와 같이 되고자 했다⁴⁾(餘事文章 黼黻王朝, 經術論思身許夔臯)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계가 23세에 사가독서문신의 영예를 누리게 된 사실만으로도 시문창작에 대한 식견이 탁월했음을 알 수 있고, 매계가 뛰어난 문장가로 총애를 독차지하여 문명을 크게 얻을 것은 그의

1) 爲人 風儀秀整 襟懷恢廓. 一世稱儒雅. 『燕山君日記』 31절 7장, 4년 무오 9월.

2) 上命聚弘文館, 藝文館堂下官 及注書等于仁政殿庭, 製東郊觀獵排律 三十韻 及駕新行釋奠頌……頌則修撰曹偉居魁, 又命金訥, 曹偉, 製仁政殿, 早朝律詩. 以定高下俱中格, 各賜馬一匹 『성종실록』 120권 4장 11년 庚子 8월.

3) 工於時文 以文章 大被成廟獎遇 - 『大東韻府群王』 5권 58장, 아세아문화사, 1975.

4) 조위, 『매계집』 4권, 계명문화사, 1988.

넓은 학식과 수려한 문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매계의 시작활동은 당대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종과 연산조에 제일의 文名을 얻었다 하겠다. 그러나 燕山朝에 들자 史草와 관련하여 그에게 비운이 짝뜨게 된다. 보수적 사고를 가진 훈구파와 진보적 취향과 절의를 중시한 사림파가 격렬히 부딪치는 戊午士禍가 연산군 4년(1498)에 발발하게 된다. 이는 김종직의 제자인 史官 金駟孫이 李克墩의 비행을 날낱이 사초에 담은 일로 하여 이들은 틈이 생기었으며, 유자광도 김종직 일파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들의 언동은 마침내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의 마음과 일치함으로 발생하게 된 조선시대 최초의 사화다.

그 내용인즉 『성종실록』 편찬을 위해 작성한 김일손의 사초에 김종직이 쓴 <弔義帝文>이 수록된 바, 이는 세조의 왕위찬탈을 풍자한 것으로 項羽가 楚懷王을 죽인 중국의 고사를 비유한 것이다. 여기에다 유자광은 교묘하게 句解를 더하여 연산군에게 上啓하였다. 이른바 義帝를 端宗으로 간주하여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일을 비방한 것이며, 단종을 弔喪하고 세조를 蔭譏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고발하였다. 이에 연산군은 김일손 등을 신문하고, 이 죄는 모두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여 그를 剖棺斬屍하고, 김일손을 비롯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귀양보내어 파면하니 사림파의 기세는 무참하게 꺾이고 말았다.

매계는 여기에 직접 연주된 것은 아니나, 김종직의 처남이자 門人이었고, 일찍이 성종의 편찬사업에 온 정열을 바쳤으며, 특히 『두시언해』, 『점필재문집』 등의 간행에 참여하였다. 이때 점필재의 시문 17권을 교정하여 드리면서 <弔義帝文>을 그 머리에 두었다.⁵⁾ 이것이 뒷날 士禍를 입을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유자광은 이를 빌미로 참조하여 <조의제문>을 처음에 실은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 하면서 처벌하기를 주청하니 연산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고, 賀正使로 연경에 간 매계를 압록강을 건너 오거든 목베어 죽이라 하였다.⁶⁾

한편 매계 일행이 요동에 이르러 국내 정세의 긴박함을 알게 되었다. 동행한 아우 적암이 요동의 名人 鄒源潔에게 앞으로의 운세를 물으니 ‘천길 물속에서 몸을 뒤집고 나왔지만, 바위 아래서 세 밤을 지새야 할 것이다’(千層浪裏翻身出 也須巖下宿三宵)라는 2구의 시를 지어 주었다. 이를 본 매계는 ‘첫구는禍를 면할 듯싶으나, 둘째구는 풀기가 어렵도다’고 하였다. 압록강에 당도한 일행은 官人의 기다림을 보고서 실색하여 마음 조이며 강을 건넜으나, 李克均의 구원(先代王의 寵臣이라 간청하여 겨우 죽음을 모면함)으로 극형을 면하고 귀양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것으로 점쟁이가 써 준 上句의 내용을 마친 것이 되었으며, 순천 유배지에서 병사한 뒤 고향에 묻혔으나 甲子年(1504) 사화에 연루되어 부관참시의 극형을 당해 무덤앞 바위 아래 3일간 시신을 거두지 못하였으니⁷⁾ 이는 점쟁이의 下句에 합당한 셈이 된다.

조위가 압록강을 넘어오면 그를 處斬하라는 연산군의 명령이 내렸다. 이때는 매계가 45세된 7월이었다. 8월 압록강에 이르러 의금부 도사를 보고 일행은 모두 두려워 떨었으나 매계는 홀로 태연하게 체포되었으며 入京하여 죄를 받고 20일에 의주 적소를 향했다.⁸⁾ 그는 이 곳

5) 成廟 命公纂集店畢之文 以弔義帝文 首錄. 『해동신명록』 4권.

6) 『연려실기술』 卷之六 戊午黨籍. 민족문화추진위원회판.

7) 이가원, 「<만분가>연구」, 『동방학지』 6집, 연세대, 157쪽.

8) 子光以先生纂集畢時文首錄弔義帝文頗有義讒於燕山時先生朝天未還燕山命越江時即處斬之八月十五日先生到遼東始聞之二十六日到鴨綠江望見金吾郎來候一行皆懼先生獨顏色不變及渡更拿命令九月九日入京逮獄十七日決罪二十日發謫義州. 조위, 전계서, 81~82쪽.

에서 1년 8개월(45세 9월~47세 5월)을 지내는 동안 같은 문하요 동료인 虛庵 鄭希浪(1469~?)과 함께 유배생활을 하면서 정자를 세우고 그 이름을 ‘葵亭’이라 하고 스스로 記文을 지어 붙인 바, 거기에는 임금을 그리는 마음이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해바라기는 능히 햇빛을 향하여 빛을 따라 기울곤 하니 이를 충성이라 일러도 좋을 것이요, 해바라기는 능히 밭을 보호하니 이를 슬기라 일러도 좋을 것이다. 대체 충성과 슬기란 사람의 신하된 절개이니 충성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되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슬기로서 물건을 변별하되 시비에 의혹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곧 군자의 어려워하는 바이요, 나의 일찍부터 연모하던 일이라. …… 이제 내 비록 귀양살이를 한다 하더라도 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 임금의 은혜가 아님이 없으니, 낮잠과 밤먹는 나머지에 심휴문과 사마군실의 시를 읊을 때마다 해를 향하여 마음을 스스로 그치지 못하였으니 해바라기로 내 정자의 이름을 지은 것에 아무런 이론이 없을 것인저.⁹⁾

위의 내용은 매계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절박한 자신의 삶의 모습이 투영된 글이라고 하겠다. 1501년 김맹손의 <止止堂集序>에서도 의주의 적소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바야흐로 남의 문자를 엮어 당시에 죄를 얻어 유배온 이래로, 처와 자식들이 내가 문서를 보거나 연필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꾸짖으면서 불살라 버렸다. 나 또한 뜨거운 국물에 입을 데어 놀란 나머지 찬나물도 불면서 먹듯 하며 붓을 찾지 않은 지가 몇 년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화복의 순환이 뒤틀리기 어려움은 하늘에 달려 있기에 피하기 어려우니 어찌 구구하게 능히 두루 비방할 바를 생각하고, 한번 목이 메인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그런즉 선원의 시는 서술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¹⁰⁾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비록 사화로 유배된 충격이 완화되지는 않았으나 문인으로서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그런데 47세(1500) 여름에 하늘이 맑은데도 뇌성이 있어 이상히 여겼더니, 조정에서 配所를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지니 5월에 순천으로 옮겨 西門 밖에 우거하였으며, 그때 寒暄堂 金宏弼도 회천에서 이곳으로 移配되어 오니, 이들은 서로가 집필재의 문하생으로 도의를 강론하며 지냈다.¹¹⁾

매계는 의주와 순천에서 5년여의 긴 세월의 유배생활을 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翰墨을 폐하지 않았으므로 文思가 前日에 비하여 倍進되었다¹²⁾고 하며, 오히려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많은 저술을 하였으며, 일찍이 『梅溪叢話』를 쓰다가 끝내지 못하였다¹³⁾고 한다. <만분가>의 내용 중 ‘湖南 어니 고디’라는 구절로 보아서도 창작 장소는 순천임이 분명하거나와

9) 曹偉, 『梅溪集』 권5, 「葵亭記」 葵能向日 隨陽而傾 謂之忠可也 葵能衛足 謂之智可也 夫忠與地 人臣之節 忠以事上 盡己之誠 智以辨物 不惑是非 此君子之所難 而余之夙昔所慕者也 …… 今汝雖謫居一眠一食 莫非主恩 千唾攤飯之餘 咏休文君實之詩 向日之心 自不能已 基 則以葵名吾亭 豈無說乎

10) 曹偉, 전계서, 권5, 「止止堂集序」, 282~283쪽. 余方以編入文字得罪 於是 竄謫以來 妻孥見余 看文書親筆硯 卽詬罵以焚棄之 余亦懲羹吹壺 不探筆者數年 卽又自計曰 倚伏難常者 在天以難道 豈區區思慮所能周防 以一噓之人終身廢食可乎 然卽 善源之詩 不可不敘以傳之也.

11) 조위, 전계서, 83쪽.

12) 其在謫也 亦不廢翰墨 文思之進 位於平昔. 『연산군일기』 31권 8장 4년 戊午 9월.

13) 雖以事廢錮 猶手不釋卷 著述頗多 嘗草梅溪叢話十餘事 未成藁以卒 『謫聞瑣錄』

매계는 이 <만분가>를 늘 부르되, 입으로 통소소리를 내면서 두 발로 腰鼓를 괴이는 한편, 손으로는 玄琴을 뜯되 曲節이 서로 맞아 그릇됨이 없게 하여 스스로 기뻐하였다¹⁴⁾고 安鼎福은 기록하고 있다.

매계가 49세(연산8, 1502)에 쓴 <임청대기>¹⁵⁾를 보면 순천부 서쪽에 玉川이란 시내가 있는데 水石이 맑고 고우며 老巨樹가 있어 해를 가려주고 물가는 평평해 수십 명이 앉을 수 있으며, 그윽하고 험맹그렇게 맑고 상쾌하다. 비록 무더운 여름일지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 이 곳은 집과 가까워 주민들과 자주 놀기 좋은 곳으로 들을 쌓아 대를 만들어 臨淸臺라 하고 記文을 지어 붙이고 늘 한훤당과 함께 도학을 강론하였다. 이때 함께한 사람으로는 주인 沈從柳, 두 노인 梁禹平·韓麟壽, 校官인 張自綱 등이다. 이들과 더불어 眞率會를 조직하고 돌러가며 밤·산나물·술향아리를 진설하고 고기를 잡아 국을 끓이고 회를 쳐서 제공하였다. 흥에 겨워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땅거미가 내려서야 헤어지곤 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지팡이를 짚고 달빛을 밝으며 돌아왔다. 昇平에 살면서 이곳의 산천과 풍토와 날씨를 몇몇 분과 더불어 조용히 향유하였다. 더러는 물을 움켜 세면을 하고 들에 기대어 발을 적시며 온종일 일없이 노닐며 늙음을 몰랐으니, 시를 읊고 글을 지으며 協比聲律에 이를 필요가 없었다. 이런 좋은 산수가 있으나 圖誌에 名勝地로 기록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이처럼 삶의 자세를 바꾼 것은 매계가 이 태를 臨淸이라 한 데서 찾을 수가 있다. 도연명은 <귀거래사>에서, “동쪽 언덕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淸流에 臨하여 시를 짓는다. 얼마동안 自然의 造化를 따르다가 마침내 돌아가면 되는 것이니 天命을 즐기면 그만이었지 다시 무엇을 의심하라<登東臯以舒嘯 臨淸流而賦詩 聊乘化而歸盡 樂夫天命復奚疑>”라고 했는데, 이는 인생을 자연의 推移에 맡겨 살려는 자연복귀의 인생관과 安心立命의 경지를 노래한 것이다. 매계도 이 시를 읽다가 임청대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 天命을 따르려는 심정으로 필경 적소에서 짧은 인생을 다하고자 하는 뜻이 엿보인다.

이 작품의 창작동기는 자신의 억울함과 결백함을 표백한 것이다. 여기서 天上白玉京은 서울이고 玉皇上帝는 성종 임금이라고 해 놓고서 자신의 유배동기가 자신의 허물과는 무관하고 부당한 것임을 故事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다. 序詞에서 작자는 흥중에 쌓인 말쑤를 실컷 호소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자신의 무죄함을 군주께 哀訴하거나 결백함을 내세워 자신이 처한 신세타령을 애절하게 그리고 있는데, 작품에서 ‘縲紲非罪’라고 한 표현은 『논어』의 ‘雖在縲紲之中非其罪也’란 구절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는 죄인처럼 묶였으나 나는 죄가 없다’라는 의미를 대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매계는 명나라 황제의 생일 축하 사절의 책임자로 임무를 수행하고 압록강을 건너자 戊年土禍에 연루되어 바로 체포 투옥되니, 어디에 그의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할 수도 없었으며, 이미 그가 성장한 바탕으로 했던 동료들도 참변을 당했으니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질 일이었다. 의주에 杖流되어 그곳에서 1년 8개월 지내면서 葵亭을 짓고 주변에 해바라기를 심어 충성과 절개를 다졌다. 또 순천으로 移配되어 3년 6개월 유배생활의 고행과 울분으로 중병을 앓게되니, 50세 되던 동지달에 졸하였다. 다음해(연산군10년) 甲子土禍가 일어나자 尹氏廢妃敎書를 작성한 것이 죄가 되어 부관참시를 당했다. 成宗이 中宮 尹氏를 廢할 때 弘文館員에 명하여 敎書를 짓게 했으나 모두 명령을 받들지 않아하므로 매계에 명하니 곧 지어 바쳤다. 이에 폐출의 교서를 지은 매계로서 부관참시는 당연지사였고, 그를 諺文獄事에 관련시켜 그의 친족들을 鞫問하였다.¹⁶⁾

14) 梅溪, 常慶口作蕭聲 兩足舉腰鼓 手彈玄琴 曲節相應不差 以爲樂 『雜同散異』 제44책.

15) 순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昇平誌』, 정문사, 1988, 33쪽.

매계는 인생의 결실기를 앞두고 일어난 황당한 사건으로 답답한 5여년의 유배의 삶을 살면서 철천의 원한을 삭이며 끝없는 인생의 벼랑을 느끼며 최후를 맞았을 것이다. 그래서 <만분가>의 서사에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의 연군적 정서가 가미되어 나타나다가 본사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 및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탄에 대한 발분적 정서가 교합되면서 연약한 사립과의 한 사람으로 막강한 훈구파의 권력 앞에서 느낀 막막한 좌절감이 분노와 체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심정은 <만분가>의 끝부분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매계는 유배지 순천에서 생애를 마쳤고, 그곳에서 한 많은 생애를 살면서 <만분가>를 통하여 원분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함을 군주를 그리는 심정으로, 혹은 유언을 쓰는 마음으로 <만분가>를 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계는 김종직 문하에서 文名을 얻었으며, 뛰어난 문재로 인하여 성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나, 무오사화가 일어나니 훈구세력과 사립파간의 알력으로 결국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었고, 그도 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또한 유배지에서 겪은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군주를 그리는 마음으로 <만분가>에 담았다. 결국 자신의 결백도 호소하지 못하고 戊午·甲子 兩士禍의 불씨로 매계의 존재는 미미하게 되었다. 더구나 후손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그 많은 저술마저도 산일되니 <만분가>의 내용대로라면 ‘千層浪 훈가온대 百尺竿의 올라더니 /無端호 兩角風이 官海中의 나리나니/ 億萬丈 소희 빠져 하늘짜흔 모를노다’의 처지가 되고 말았다.

Ⅲ. 作品構造

<만분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 작품이 124행 248구이고 3·4·3·4의 4음보격인 정형시가라 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내용은 크게 3단락, 5단락, 9단락, 13단락 등으로 나누었다.

3단락으로 나눈 이상보¹⁷⁾는 1행에서 10행까지를 序詞, 11행에서 100행까지를 本詞, 101행에서 124행까지를 結詞 등으로 나누었다. 서사는 배소에서 玉皇香案前에 이르러 흥중에 쌓인 말쑤를 실컷 호소하고 싶다고 하여 작품을 짓게 된 처지와 심정을 나타내었다. 본사에서는 지난날의 영화가 유배신세로 전락하니 모두가 천명이고 오직 옥황의 처분만 바랄 뿐이라고 읊조리면서 자신을 楚客에 견주어 한탄하였다. 그리고 결사에서는 원분만 쌓인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와 하며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이가 있으면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여운을 남겼다.

9단락으로 나눈 김주곤¹⁸⁾은 1행에서 10행까지는 임금에 대한 衷情이 사무치게 그려진 序詞이고, 11행에서 101행까지는 本詞로 7단락으로 나눈 바, 11행에서 18행까지는 유배의 처지에서 고향에 갈 수 없음을, 19행에서 30행까지는 배소에 있으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보답을, 31행에서 44행까지는 憂國의 심정을, 45행에서 58행까지는 解配의 恩澤을 기대하며, 59행에서 74행까지는 자신의 生死를 하늘에 맡기고 체념하는 모습을, 75행에서 85행까지는 임금에 대한 원망을, 86행에서 101행까지도 임금에 대한 원망을, 그리고 102행에서 124행까지는 結詞로 자신의 결백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래도록 교유상감하겠다고 하

16) 刷曹偉族親 鞠匿名書事 <「연산군일기」 권60 정9, 11년 11월>

17) 이상보, 『韓國歌辭文學의 研究-前期歌辭를 中心으로』, 형설출판사, 1974.

18) 김주곤, 「조위의 <만분가>연구」, 『영남언어문학』 14집, 영남언어학회, 1987, 323쪽.

였다.

또한 최상은¹⁹⁾은 <만분가>를 13단락으로 나누고, 1단락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를 ‘胸中에 싸힌 말씀 쓸커시 스로리라’고 하여 옥황에게 하소연하겠다는 것이고, 2단락에서 13단락까지는 구체화된 사실이 대립적 구조로 전개되는데, 2·4·6단락은 화자에 대한 현실적 조건을 3·5·7단락은 현실적 조건에 대한 화자의 속마음을 표현하여 서로 엇갈리게 나열하였으며, 8단락에서는 체념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9단락에 오면 현실과 화자의 대립으로 역전되고, 10단락은 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을 말한다. 또 11단락에서 13단락까지는 체념과 갈등이 대립적으로 교체된다. 이처럼 <만분가>는 몇 번의 전환과 함께 대립관계로 구성되어 마지막에는 체념으로 마무리된다. 화자는 현실과 대립에서 결국은 패배하여 체념을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이는 표현대상으로 현실과 화자, 소재의 성격, 시제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김정주²⁰⁾는 <만분가>의 구성을 크게 3단계로 나누고, 서사에서는 작품제작의 동기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본사는 7부분으로 나누어 논하였는데 먼저 고향에 갈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을 屈原과 賈誼의 처지에 비유하고 赤松子가 놀았던 金華省에 이르러서는 신선의 세계를 꿈꾸었으며, 이어서 君恩에 보답하고자 하는 忠誠心이 투영되고, 또 憂國을 토로하고 土禍에 연루된 同類들의 불행을 염려하였다. 다음에서는 生死運命을 天命에 맡기고 諦念하는 모습을 보였고, 朝廷을 원망하면서도 向君에 대한 曲盡한 심정을 그렸으며, 또한 자신의 운명이 玉皇에 달렸다고 하면서 恩澤으로 解配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 결사에서는 자신의 萬憤을 알아주는 이와 평생토록 상감하리라 하여 주관적 서정이 잘 나타났다고 했다.

그리고 박일용²¹⁾은, <만분가>를 5단락으로 나누어 1행에서 10행까지를 서사, 11행에서 120행까지를 본사, 121행에서 끝까지를 결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서사에서는 서정적자아를 님과 이별한 여인으로 설정하고, 시적 정황을 축약적으로 진술하여, 서정적자아의 처지와 욕구를 그리고 있다. 본사는 님에 대한 그리움, 님을 향한 원망,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한 바, 첫째는 11행에서 58행까지 자신의 처지와 그리움을 토로하였고 둘째, 59행에서 101행까지는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원본과 슬픔을 토로했으며 셋째, 102행 이하는 자신의 처지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서정적자아의 운명적 사유를 토로하였다. 그리고 결사에서는 님이 나의 사설을 듣고 사랑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번민속에서 자신의 정회를 다 설화하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그리고 정석봉,²²⁾ 문찬식,²³⁾ 권성준,²⁴⁾ 최종식²⁵⁾ 등의 논문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를 9단락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처럼 <만분가>의 구조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늘에 대한 원망과 삶에 대한 체념이 무르익어 불안과 좌절 속에 반복되어 표출된 원분지정이 계속되다 보니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형성미를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19) 최상은, 「<만분가>와 <사미인곡>의 작품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15집, 영남어문학회, 1988, 283쪽.

20) 김정주, 「만분가연구」, 『인문과학연구』 92권 1호,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21) 박일용, 「만분가의 형상화와 형태-연군적 정서와 발분적 정서의 교합 양상-」, 『한국고전시가론』, 집문당, 1992.

22) 정석봉, 「유배가사-만분가, 낙지가, 북관곡, 만언사, 북천가를 중심으로-」, 『어문교육』 1권, 어문교육연구회, 1978.

23) 문찬식, 「유배가사연구」, 『논문집』 1권, 광주경산전문대, 1981.

24) 권성준, 「유배가사의 미학적 접근」,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5) 최종식, 「유배가사연구-만분가, 별사미인곡, 속사미인곡, 만언사, 만언사답, 북천가를 중심으로-」, 우석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아울러 이 작품의 구조분석과 작가의식을 전개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동안 <만분가>를 논의한 많은 학자들은 고심을 해왔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기왕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분가>의 구조분석과 주제의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기로 하였다.

우선 작품 전체를 서사, 본사, 결사 등으로 나누고, 다시 본사를 7단락으로 나누어 각 단락의 원문²⁶⁾과 전문해석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序詞로 1행에서 10행(天上 白玉京 ~ 쓸커시 스로리라)까지이다.

天上(천상) 白屋京(백옥경)	十二樓(십이루) 어디매오
五色雲(오색운) 깃픈 곳의	紫淸殿(자청전)이 ㄹ려시니
天門(천문) 九萬里(구만리)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식어져어	億萬(억만)번 變化(변화)하여
南山(남산) 늦은 봄의	杜鵑(두견)의 녀시 되어
梨花(이화) 가디 우회	밤낮을 못 올거든
三清洞裡(삼청동리)의	점은 한녔 구름 되어
바람의 흘리 나라	紫微宮(자미궁)의 나라 올라
玉皇(옥황) 香案前(향안전)	咫尺(지척)의 나아 안자
胸中(흉중)의 싸힌 말씀	쓸커시 스로리라

(천상 백옥경은 십이루가 어디인가?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천문 구만리를 꿈이라도 갈동말동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녀이 되어 이 화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면 삼청동리에 저문 하늘 구름되어 바람에 흩날려서 자미궁에 날아올라 옥황 향안전에 지척에 나아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위에서 서정적자아는 님이 계신 궁궐이 구름에 가려 꿈에도 갈 수 없는 정황을 제시하고, 죽어서 두견이나 구름이라도 되어 님의 곁에 가서 흉중에 쌓인 말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절실한 소망을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옥황은 先王(성종)으로 도가적 천상세계인 신선 의 집에 계시니 자신의 유배지인 지상과는 도저히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억만번 윤회전승을 거쳐서라도 님의 곁에 가서 만분의 정한을 실컷 사되어 해소하고 싶다는 영원불변의 사랑의 정서가 돋보이며, 서정적자아가 유배지에서 느끼는 원분지정이 압축적이면서도 곡진하게 피어오르는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다음은 본사의 제1단락으로 11행에서 27행(어와, 내 몸이 ~ 님 그려 이리컨쟈)까지이다.

어와, 이 내 몸이	天地間(천지간)의 느저 나니
黃河水(황하수) 물다만논	楚客(초객)의 後身(후신)인가
傷心(상심)도 ㄹ이 업고	賈太傅(가태부)의 녀시런가
한숨은 무스 일고	荊江(형강)은 故鄉(고향)이라
十年(십년)을 流落(유락)하니	
白鷗(백구)와 버디 되어	힘의 놀자 ㅎ였더니

26) 다음에 계속하여 제시되는 原文은 이상보 편저인 『한국가사선집』(집문당)에서 인용함.

어루는 듯 괴는 듯	님의 업슨 님을 만나
金華省(금화성) 白玉堂(백옥당)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五色(오색)실 니움 절너	님의 옷슬 못 햏야도
바다 ㄹ튼 님의 恩(은)을	秋毫(추호)나 갑프리라
白玉(백옥) ㄹ튼 이 내 ㅁ음	님 위햏여 직희더니
長安(장안) 어제 밤의	무서리 섯거치니
日暮修竹(일모수죽)의	翠袖(취수)도 冷薄(냉박) 햏샤.
幽蘭(유란)을 것거 쥐고	님 겨신 디 ㅼ라보니
弱水(약수) ㄹ리진 디	구름 길이 머햏러라
다 서근 ㄹ긔 얼굴	첫맛도 채 몰나셔
憔悴(초취)햏 이 얼굴이	님 그려 이리컨자

(아! 이 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맑다마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는 가태부의 녀이런가? 한숨은 웬 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긴 세월을 유락하니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아양부리듯 사랑하듯 남과 다른 님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마저도 향기롭구나. 오색실 이음 짧아 님의 옷을 못햏여도 바다 같은 님의 은혜 추호나 갓으리라 백옥같은 이 내 마음 님 위햏여 지켰더니 장안 어젯밤에 무서리 마구 내려 일모수죽에 취수도 냉박하구나 유란을 꺾어 쥐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 데 구름 긴 길이 험하구나 다 찍은 닭의 얼굴 첫 맛도 채 몰라서 초취한 이 얼굴은 님 그려 이리 됐네)

이상은 흥중의 쌓인 말씀을 구체화한 것으로 자신을 초객과 가태부에 비겨 유배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의주에서 순천으로 이배되어 오랜 세월 동안 백구를 벗하게 되니 적송자가 득도한 금화성에 이르러 선경의 향기로운 꿈도 꾸어본다. 유배지에서도 님의 옷을 짓고 유란을 꺾어 님에 대한 보은을 하고자 하나 지난 밤 무서리가 내려 냉기가 감도는데, 더구나 약수가 막고 구름이 험하여 님에게 갈 수 없는 안타까움에 지친 자신의 초취한 모습을 자탄하였다.

다음은 본사의 2단락으로 28행에서 46행(千層浪 햏가운데 ~ 一夜의 기도 길샤)까지다.

千層浪(천층랑) 햏가운데	百尺竿(백척간)의 올라더니
無端(무단)햏 羊角風(영각풍)이	宦海中(환해중)의 니리나니
억만장(億萬丈) 소희 싸져	하늘 싸햏 모를노라
魯(노)나라 흐린 술희	邯鄲(한단)이 무슴 罪(죄)며
秦人(진인)이 醉(취)햏 蠶(잔)의	越人(월인)이 무슴 텃고
城門(성문) 모딘 불의	玉石(옥석)이 햏희 터니
써 압희 심은 蘭(난)이	半(반)이나 이우레라
梧桐(오동) 점은 비의	오기럭기 우리 렐 제
關山萬里(관산만리) 길이	눈의 암암 불피는 듯
靑蓮詩(청련시) 고쳐 읊고	팔도 한을 슯쳐 보니
華山(화산)의 우는 새야	離別(이별)도 괴로왜라
望夫山前(망부산전)의	夕陽(석양)이 거의로다

기도로고 바라다가	眼力(안력)이 盡(진)듯던가
落花(낙화) 말이 엷고	碧窓(벽창)이 어두브니
입 노른 샷기 새들	어이도 그리 건자
八月秋風(팔월추풍)이	췌집을 거두으니
빈 긴의 쓰인 알히	水火(수화)를 못 면토다
生離死別(생리사별)을	흔 몸의 혼자 맛다
三千丈(삼천장) 白髮(백발)이	一夜(일야)의 기도 길샤

(천길 물 한 가운데 백척간두에 올랐더니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중에 내리다니 억만장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네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잔에 월인이 무슨 탓인가? 성문 모진 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시들었네 저물녘 오동에 내리는 비에 외기러기 울며 날 때 고향 만리길이 눈에 삼삼 밝히는 듯 李白의 詩를 다시 읊고 팔도 한을 스쳐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로워라 망부산 앞에 석양이 거의 로다. 기다리고 바라다가 안력이 다 했던가? 낙화는 말이 없고 푸른 창문이 어두우니 입 노란 새끼 새들 어미를 그리는가? 팔월 추풍이 띠집을 거둬내니 빈집에 쌓인 알이 물불을 못 면하네 생사이별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장 백발이 하루 밤에 길기도 길다.)

위에서는 화자 자신을 남편과 자식을 이별한 화산의 새에 비유하여 유배의 회포를 이야기하였다. 궁중에 회오리바람 일어나 억만장 소에 빠져 옥석이 함께 타서 죽으니 망부산 석양이고 태풍에 수마를 만나 생사를 앞에 두니 백발이 하루 밤에 삼천장이나 길었다고 하여 유배지에서 생사이별의 비탄을 슬회한 내용이다.

다음은 본사 제3단락으로 47행(風波(풍파)의 현 비 타고 ~ 눈 위호여 적시논고)까지다.

風波(풍파)의 현 비 타고	흙씨 노던 저뉴덜아
江天(강천) 지는 희의	舟楫(주집)이나 無恙(무양)헛가
밀거니 혀거니	灩澦堆(염여퇴)를 겨요 디나
萬里鵬程(만리봉정)을	멀니 곱 견주더니
바람의 다브치여	黑龍江(흑룡강)의 췌러진 듯
天地(천지) ㄱ이 엷고	魚雁(어안)이 無情(무정)헛니
玉(옥) ㄱ튼 面目(면목)을	그리다가 말년지고
梅花(매화)나 보내고져	驛路(역로)를 바라보니
玉樑明月(옥량명월)을	녀 보던 ㄱ비친 듯
陽春(양춘)을 언제 불고	눈비를 혼자 마자
碧海(벽해) 너븐 ㄱ의	녁시조차 훗터지니
내의 긴 소매를	눈 위호여 적시논고

(풍파에 현 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벗들아! 수평선에 해는 지는데 탄 배나 무탈한가? 밀거니 당기거니 염여퇴를 겨우 지나 멀고도 험한 길을 멀리멀리 견주더니 바람에 다 부딪쳐 흑룡강에 떨어진 듯 하늘 땅 끝이 없고 물고기와 기러기도 무정하니 옥 같은 얼굴을 그리다가 말까보다 매화나 보내고자 역참길을 바라보니 옥대들보에 걸린 밝은 달은 예보던 낮빛인 듯

양춘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푸른 바다 넓은 가에 녀도 따라 흠어지니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해 적시는가?)

위에서는 土禍에 연루된 동료들의 불행을 슬퍼하고 멀고 먼 使行갔다 돌아오던 길에 갑자기 풍파를 만나 차가운 북해에 떨어진 신세로 님의 얼굴을 그리며 홀로 눈비를 맞으며 녀을 잃어 하염없이 비통해 하는 모습이다. 옥같은 님의 얼굴 그리다가 매화를 보내려 하나 눈비를 홀로 맞아 녀도 따라 나가니 흐르는 눈물이 옷소매를 적신다고 이별의 悲嘆을 슬회하였다. 다음은 본사의 제4단락으로 59행에서 74행(太上 칠위분이 ~ 하늘을 원망할가)까지이다.

太上(태상) 칠위분이	玉眞君子(옥진군자) 命(명)이시니
天上(천상) 南樓(남루)의	笙笛(생적)을 울리시며
地下(지하) 北風(북풍)의	死命(사명)을 벗기실가
죽기도 命(명)이요	살기도 하늘이니
陳蔡之厄(진채지역)을	聖人(성인)도 못 면하며
縲紲非罪(유설비죄)를	君子(군자)인들 어니흐니
五月飛霜(오월비상)이	눈물로 어리는 듯
三年大旱(삼년대한)도	冤氣(원기)로 니리도다
楚囚南冠(초수남관)이	古今(고금)의 혼들이며
白髮黃裳(백발황상)의	서룬 일도 하고 만타
乾坤(건곤)이 病(병)이 드리	混沌(혼돈)이 죽은 後(후)의
하늘이 沈吟(침음)할 듯	貫索星(관색성)이 비취는 듯
고정으국(孤情依國)의	冤憤(원분)만 싸혔시니
차라리 瞎馬(할마) 마치	눈 감고 지내고져
蒼蒼漠漠(창창막막)하야	못 미들슨 造化(조화)일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가

(태상 일곱분이 옥진군자 명이시니 천상 남루에서 피리를 울리시며 지하북풍에 死命을 벗기실까? 죽음도 명이요 살기도 하늘이니 진체의 황색을 공자도 못 면했으며 죄없이 잡힌들 군자라도 어이하리 오월 치는 서리가 눈물로 어리는 듯 삼 년 대한도 원통한 기운이 이는구나 남관 쓴 죄수가 고금에 한 돌이며 나이 들어 신하노릇 하자니 힘든 일도 많고 많다.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히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감옥생활이 비치는 듯 나라 위한 외로운 심정 원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애꾸눈 말이 되어 눈감고 살고 싶다. 넓고 아득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알 수 없으니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위에서는 서정적 자아가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원분과 비통함을 노래하였다. 장황한 한문 고사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원망을 거침없이 토로하고 있어 만분가라는 제목에 걸맞는 발본적 정서가 짙게 나타난 단락이다. 고금에 성현들도 역울한 일을 당했듯이 세상에 원분이 가득하여 천지조화를 믿을 수 없음을 원망하였다.

다음은 본사 제5단락으로 75행에서 87행(盜跖도 성히 놓고 ~ 전혀 아니 슬피시니)까지이다.

盜跖(도적)도 성히 놓고	伯夷(백이)도 餓死(아사)하니
東陵(동릉)이 늙은 작가	首陽(수양)이 늙은 작가
南華(남화) 삼십편(삼십편)의	議論(의논)도 하도 할사
南柯(남가)의 지난 꿈을	싱각거든 슬므어라
故國松楸(고국송추)를	꿈의 가 먼저 보고
仙人(선인) 丘墓(구묘)를	인 後(후)의 싱각하니
九回肝腸(구회간장)이	굽이굽의 그쳐세라
瘴海陰雲(장해음운)의	白晝(백주)의 훗터디니
湖南(호남) 어니 고디	鬼域(귀역)의 淵藪(연수)런디
魑魅魍魎(이매망량)이	쓸커디 저즌 ㄴ의
白玉(백옥)은 므스 일로	靑蠅(청승)의 깃시 뉘고
北風(북풍)의 혼자 서서	ㄴ 업시 우는 뜻을
하를 ㄴ튼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슬피시니

(큰 도적도 잘 놓고 성인도 굶어 죽으니 동쪽릉이 높은가? 수양산이 낮은건가? 莊子 30편에 의론도 많고 많다. 南柯之夢을 생각하면 싫고도 미워라 산소에 심은 나무를 꿈에 가만 쳐보고 선조 무덤을 깨어나서 생각하니 갈피진 속마음이 굽이굽이 끊어졌네 장독을 일으키는 습한 구름이 백주에 흩어지니 호남 순천이 귀역들의 집합소인지 도깨비와 귀신들이 싫도록 젖은 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깃이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같은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살피신다 하였다)

위에서는 도적이 잘 되고 성인이 못되는 세상이니 천지조화를 믿을 수가 없음을 원망하고 先王이나 先祖들의 영화가 南柯一夢처럼 덧없게 느껴지고, 질병과 귀신 많은 유배지에 버려진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슬퍼하는 심회를 장황히 토로하였다. 특히 님(백옥)이 쉬파리들의 깃이 되면서 북풍에 홀로 우는 자신을 살피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서 간신들을 쉬파리에 비유하면서 왕권을 포함한 세계 질서 자체에 대한 원분지정을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다음은 본사의 제6단락으로 88행에서101행(木蘭秋菊에 ~ 玉皇上帝 처분일다)까지다.

木蘭秋菊(목란추국)에	香氣(향기)로운 타시런가
婕妤(첩여) 昭君(소군)이	薄命(박명)흔 몸이런가
君恩(군은)이 물이 되어	흘너가도 자취 업고
玉顏(옥안)이 씻이로되	눈물 ㄴ려 못볼로다
이 몸이 녹가져도	玉皇上帝(옥황상제) 處分(처분)이요
이 몸이 식어져도	玉皇上帝(옥황상제) 處分(처분)이라
노가디고 식어져도	魂魄(혼백)조차 훗터지고
空山(공산) 羈縻(족류)ㄴ치	님자 업시 구니다가
崑崙山(곤륜산) 第一峯(제일봉)의	萬丈松(만장송)이 되어 이서
벼람비 쓰린 소리	님의 귀에 들이니
輪回(윤회) 萬劫(만겁)흔여	金剛山(금강산) 鶴(학)이 되어
一萬(일만) 二千峯(이천봉)의	ㄴ음긋 소사 올라

그을 들 불근 밤의
님의 귀의 들니기도

두어 소리 슬피 우리
玉皇上帝(옥황상제) 處分(처분)일다

(목련과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첩여와 소군이 박명한 몸이던가? 군은이 물이 되어 흘러도 자취없고 옥안이 꽃이로되 눈물 가려 못 보겠네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오,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네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까지 흩어지고 공산 해골되어 임자없이 굴러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비바람 뿌린 소리 임의 귀에 들리거나 할까? 오랜 세월 들고 돌아 금강산 학이 되어 일만이천봉에 마음껏 솟아올라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울어 보아도 임의 귀에 들리기는 옥황상제 처분일세라 하였 다.)

위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와 체념이 함께 하고 있다. 목련 국화의 향기 때문인지 군은과 옥안을 볼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 몸이 죽어 공산에 해골로 구르다가 곤륜산 만장송이 되고, 금강산 학이 되어 가을 달 밝은 밤에 슬피우나 옥황상제가 들어 줄지 회의가 겹치고, 들어주지 않아 박명한 몸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심사를 읊었다.

다음은 본사의 제7단락으로 102행에서 120행(훈이 썬희 되고 ~ 네 아니 아뒀더냐)까지다.

훈(恨)이 썬희 되고
님의 집 창 밖기
雪中(설중)의 혼자 피어
月中疎影(월중소영)이
어엿븐 이 얼굴을
東風(동풍)이 有情(유정)하여
高潔(고결)한 이 내 심계
빈 낙대 빗기 들고
白溝(백구) 건너 저어
그려도 훈 마음은
너 무든 누역 속의
一片(일편) 長安(장안)을
외오 굿겨 울히 굿겨
이 몸이 전혀 몰라
天道(천도) 漠漠(막막)하니
伏羲氏(복희씨) 六十四卦(육십사괘)
周公(주공)을 씬의 뵈와
하늘이 눅고 눅하
구름 우희 느는 새야

눈물로 가디 삼아
외나모 梅花(매화) 되어
枕邊(침변)의 이위논 듯
님의 옷의 빗취어든
네로다 반기실가
暗香(암향)을 불러 올려
竹林(죽림)의나 부치고져
빈 비를 혼자 썬워
乾德宮(건덕궁)의 가고지고
魏闕(위궐)의 달너 이셔
님 향흔 씬을 썬어
日下(일하)의 브라보고
이 몸의 타실년가
물을 길이 전혀 업다
天地萬物(천지만물) 상긴 뜻을
즈시이 못줍고져
말 업시 눅흔 뜻을
네 아니 아뒀더냐

(恨이 뿌리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밖에 한 그루 매화되어 눈 속에 홀로 피어 침 변에 시드는 듯 외로운 그림자 님의 옷에 비치거든 가엾은 이 얼굴을 너구나 하고 반기 실

까? 동풍이 유정하여 매향을 불어올려 고결한 이 내 生界 竹林에나 보내고저 빈 낚시 비껴 들고 빈 배를 홀로 띄워 한강을 건너 저어 궁궐에 가고 싶다. 그래도 한 마음은 대궐에 달려 있어내 물은 도롱이에 넘 향한 꿈을 깨어 一片長安을 밝은 대낮에 바라보고 있으나 일이 외로 꼬이고 오로 꼬인 것이 이 몸의 탓이던가? 이 몸은 전혀 모른 일이라 하느님도 무심하니 물을 길이 전혀 없다. 복희씨 六十四卦 천지만물 생긴 뜻을 周公을 꿈에 뵈고 자세히 묻고 싶다.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너는 알지 않겠느냐?)

위에서는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번민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님의 은총으로 살아나고픈 반복된 애소를 듣는 것 같아 서정적자아의 모습이 애처롭고 눈물겹다. 한과 눈물의 매화되어 님의 침변에서 시들어 외로운 그림자로 님의 옷에 비쳐 보나 님이 나를 반길 리는 만무하고, 죽림칠현이 기거했던 곳에 있어도 마음만은 조정에 달려가니 유배지에서 꿈을 깨어나 장안을 대낮에 보고 싶으나 복잡하게 꼬인 현실이 누구의 탓인가 자신은 진정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天道가 막막하여 알길이 없어 천지만물 근본을 주공에 묻고자 하나 하늘이 너무 높아 갈 수 없으니 구름 위를 나르는 새만은 알지 않겠냐고 탄식하였다.

다음은 결사로 121행에서 125행(어와 이 내 가슴 ~ 萬世相感 ㅎ리라)까지다.

어와 이 내 가슴	
山(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 어디 사해서며
비 되고 물이 되어	어디 어디 우러 뵈고
아모나 이 내 뜻	알 니 곳 이시면
百歲交遊(백세교유)	萬世相感(만세상감) ㅎ리라

<잡동산이(雜同散異) 44책에서>

(아! 이 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 어디어디 쌓였으며
비 되고 물이 되어 어디어디 울며 갈까?
아무나 이 내 뜻 알 이 곧 있으면 백세교유 만세상감 하리라.)

위의 본사에서는 자신의 운명이 玉皇上帝, 즉 님의 처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여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흑여 報恩이 내려 解配되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님에 대한 충절과 연모의 정이 잘 투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원한에 쌓인 자신의 심정을 물을 길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이렇게 서정적자아가 자신의 소회를 충분히 진술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성총을 얻지 못했기에 ‘흉중에 싸힌 말씀 쓸커시 스로리라’고 한 서사의 내용이 충족되지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 님에 대한 연군의 정을 기대할 수 없어 자신의 처지는 원분과 통한의 노래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결사에 이르러서는 산에 돌이되어 쌓이고 빗물이 되어 어딘가로 울며 울며 흘러가다가 終行에 가서는 어느 누구나 자신의 만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토록 서로 교유하며 상감해 보고 싶어하는 서정적자아의 마지막 소망을 읊었다. 그러나 그 소망마저도 성취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입장에 서고 보니, 이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끝까지 만분으로 점철된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논의한 <만분가>의 구조적 특성을 요약하면, 총 125행 247구의 장편가사다. 15행의 ‘十年을 流落하니’, 115행의 ‘이몸이 전허몰라’, 121행의 ‘어와 이 내 가슴’ 등 3행은 外句가 없어지면서 호흡이 바뀌는 單句가 되었다.

작품의 구조를 크게 序詞, 本詞, 結詞 등으로 나누고, 본사를 7단락으로 세분하여 創作動機, 衷情謳歌, 囹圄悲歎, 仰天歎息, 怨憤吐露, 含憤蓄怨, 哀訴懷疑, 聖寵回復, 萬憤과 諦念 등으로 고찰한 바, 작가 자신이 억만장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며 절망하고 체념하는, 그리고 원분의 심정을 읊었다.

또 白玉京, 玉皇上帝 등 道教用語와 ‘楚客의 後身인가’, ‘賈太傅의 녀시런가’, ‘金華省白玉堂의’, ‘陳蔡之厄을’, ‘縲紲非罪를’, ‘崑崙山 第一峯의’ 등 中國故事를 많이 쓴 것은 萬憤을 直訴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회적인 은유법을 사용하였고, 문장 표현의 완곡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혹자는 이런 형상화 기법에 대하여, 儒家의 선비로 도교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수다스러운 사설을 아로 새기기만 했고, 내심을 토로하는데 치우치다 보니 현실인식이 둔화되었다²⁷⁾고 폄하하고 있으나, 이는 <만분가>의 깊은 내용을 새기지 못한 성급한 평가라고 하겠다. 이런 도교용어와 중국고사의 빈번한 사용은 작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문장력이라 하겠고, 또한 天上과 中國은 작가의 현실과는 단절된 공간으로 이런 공간적 대립은 님과의 재회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슴에 쌓인 怨情과 萬憤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환경적 여유를 마련하였다고 보아 작품 구성의 특이성이 엿보인다.

IV. 作家意識

<만분가>에 나타난 작가의 의식세계를 고찰함에 있어 유배 문학을 바라보는 일반적 의식은 작품의 내용을 유배지에서 겪은 온갖 고초와 고독감에서도 向主一片丹心으로 보고 한결같이 忠臣戀君之詞라 하였다. 이상보²⁸⁾도 유배가사는 작자의 敗北意識과 挫折感이 전편에 넘쳐 있기 때문에 泣訴, 哀怨, 傷心 등이 그 主詞를 이루지만 諦念이나 絶望을 극복하고 다시 임금께 나아가려는 意志力이 여운처럼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이런 의식에 따라서 <만분가>의 주제의식도 戀君歌로 간주 되었으며, 뿐만아니라 <만분가>가 이런 유형을 만들고 주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작가 의식을 고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김주곤²⁹⁾도 조선의 유교사회에서는 五倫中에 특히 忠을 가장 중시하였으니 이를 주제로 하여 이루어진 작품이 憂時戀君的인 詩歌類인데 <만분가>도 여기에 속하며, 유배지에서 憂時憂國하고 戀君丹忠하는 衷情을 구가하여 疏遠해진 聖寵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고, 특히 ‘五色실 니움 절너 님의 옷슬 못 햐야도 바다 ㄱ튼 님의 恩을 秋毫나 갑프리라’라는 구절은 君王을 사모하고 국사를 염려하며 충성을 서약한 것을 주제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는 후일 유배가사의 좋은 표본으로 思美人系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또 이후 <유배가사에 나타난 충절의식 양상>의 논의에서도 <만분가>는 戀君의 忠情으로 일

2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권, 지식산업사, 1983, 300쪽.

28)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17쪽.

29) 김주곤, 전계논문, 330쪽.

———, 「유배가사에 나타난 충절의식 양상」, 『영남어문학』 16집, 영남어문학회, 1989, 356~358쪽.

관한 ‘向主一丹心’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생사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모든 것을 체념하려는 숙명론적 인생관에 뿌리박고 있음을 알게 하는 戀君의 작품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약간 다른 주장을 낸 최상은³⁰⁾은 <만분가>와 <사미인곡>는 유배지에서 왕을 그리워하는 정서로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각기 특이한 구조를 가진 유배가사로 유배지에서 왕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그리되 님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으로 형상화했다. 그러나 전자는 몇 번의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결사에 가서도 역시 아무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면 오래도록 교유하고 감응하겠다고 하여 님을 체념하여 자포자기로 끝맺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조츠려 흐노라’고 님에의 무조건적 사랑을 구가함으로 兩歌는 대조적인 차이를 보임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지니면서도 사뭇 다른 의미를 창출하는 작품이라고 했다.

김정주³¹⁾도 <만분가>의 내용을 크게 戀君之情과 身世恨歎으로 나누고 전자는 哀情을 구가하여 聖寵을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흔이 쓸희되고 눈물로 가디삼아 님의 집 창 밧기 외나모 梅花되여 ~ 여옛븐 이 얼굴을 네로다 반기실가’를 들었고, 후자는 유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님께 哀訴하는 내용으로 ‘죽기도 命이요 살기도 하느리니 陳蔡之厄을 聖人도 못면흐며 縲紲非罪를 君子인들 어이호리’라고 공자도 진채의 땅에서 횡액을 못면했다고 하면서 유배지에 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자신의 심정을 곡진히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박일용³²⁾은, <만분가>는 한편으로는 님을 잃은 여성을 서정적자아로 설정하여 연군적 정서의 형상을 취하고, 다른 면에서는 <만분가>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유배를 당하게 된 현실에 대한 발분의 정을 아울러 표출하는 유배가사라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유배가사가 지닌 양면의 전형적인 형태중 어느 한쪽 경향을 취하지 않고 그 둘을 아우르는 특징을 보이는 것은 이 작품이 유배가사의 효시 작품이기도 하지만 작가가 당대의 정치현실에 대해 가진 세계관적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식³³⁾은 <만분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현실에 대한 愴憤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고 아울러 애소와 체념, 연군적 정서등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순응하는 의식과 함께 현실의 질곡을 비판하는 의식이 표출되어 있어 다른 유배가사와는 달리 현실 순응의식과 현실 비판의식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현실 질곡에 대한 발분적 정서를 비판적 인식으로 획득하기 보다 서정적 자아의 체념적 정서에 동화하고 현실도피적 경향으로 형상화 되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이상보는 <만분가>의 주제의식을 임금께 나아가려는 의지력이 담긴 연군가로 보았고, 김주곤도 충정을 구가하여 소원해진 聖寵을 회복하고자 한 연군적 작품으로, 최상은 왕을 그리워한 정서를 노래하되 <사미인곡>와 다른 의미를 창출하였고, 김정주는 연군지정과 신세한탄으로 나누어 논하고, 결국에는 哀情을 구가하여 聖寵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박일용은 연군적 정서와 발분적 정서의 교합이고, 그리고 최종식은 발분적 정서를 비판적 인식으로 획득하지 못하고 체념적, 현실도피적 경향으로 보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물론 위의 주장에는 그럴만한 근거들을 제시하여 논의한 바, 가사작품의 분석적 연구를 하

30) 최상은, 「<만분가>와 <사미인곡>의 작품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15집, 영남어문학회, 1988, 290~292쪽.

31) 김정주, 전계논문, 185~186쪽.

32) 박일용, 전계서, 609쪽.

33) 최종식, 전계논문, 40~41쪽.

고자 하는 후학들에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작품 자체보다는 유배라는 상황과 사대부라는 입장에서 충신연주지사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한 외적 요인이나 작가적 위상도 중요하지만, 작품 연구는 작품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 결과의 종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전자와 같이 문학 외적 사실에 근거한 연구에 그치고 말면, 각 작품의 특수성은 감추어지고 작품들의 일반성만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개개 작품은 모두 작품마다 특수한 구조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일반성 속에 숨겨진 그 작품만이 지닌 특수성을 찾는 작업이야말로 앞으로 가사문학연구에 있어서 하나의 선결과제라 본다. 이런 관점에서 <만분가>를 분석해 본 결과, 유배라는 공통된 상황과, 사대부 작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충신연주지사라는 일반성 속에 <만분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독특한 구조와 의식 속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였다.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비슷한 주제의식인 듯하지만 작가가 의도한 주제의식을 분명히 함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작품의 의미는 그만큼 큰 진폭으로 다가오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만분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작가의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각 단락의 중심내용을 요약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序詞에서 서정적자아는 자신의 처지나 욕구를 하소연하기 위하여 님과의 만남을 희망하나 玉皇(성종)은 天宮에 있고 자신은 지상의 배소에 있으니 꿈속에서도 갈 수 없거늘 죽어서 두견의 녀으로, 구름으로 변하여 자미궁에 올라 옥황 앞에서 흥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사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玉皇과 抒情的自我는 生死가 다르고, 天宮과 配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님과의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자신의 현실적 비통함을 토로해 보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한 것일 뿐이다. <만분가>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흥중에 쌓인 말씀은 ‘萬憤’일 것이고, 이를 들어 줄 님은 처음부터 없으며, 더구나 어느 님이 있어 자신의 원분을 해소해 줄 가능성은 전혀 없으리라는 것쯤은 서사의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사는 자신의 원분을 해소할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비탄을 떨치기 위한 서두이고, 자신의 애소를 님에게 사뢰고 싶은 대상으로 성종을 假象하여, 객관적 실재성이 없는 주관적 환상인 옥황으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서정적 자아와 님은 君臣의 관계로서 충성을 다 바친 先王과 河海와 같은 성종을 입은 臣下의 관계로 유배지에서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빠진 서정적자아의 심정이라면 님과 함께 지척에 앉아 흥중의 말씀을 실컷 사될 수 있을 것인데, 구태여 <만분가>의 서정적자아를 님과 이별한 여인으로 설정하고 여성적 정조가 부족하느니, 남성적 정조의 표출과 남성적 소재의 선택을 화자의 성격 불일치라는 비판을 하고 있으니 이는 작품의 특수성의 인식이 부족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소재는 여성적 화자나 정서의 표현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님의 옷술 못 햅야도’에서 ‘님의 옷’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 할 수 있으나 진정 임금의 옷이라면 아무나 평범한 여성의 소유물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는 님에 대한 사랑을 곡진하고 간절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소재로 볼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여성적 화자라 단정하여 작품 전체를 주도한 남성적 정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만분가>의 서정적자아는 남성이고, 지금은 유배지에서 원분을 노래하게된 작자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성종의 총애가 지극했던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앞에서 전개된 세계는 너무도 큰 시련이고, 납득할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된 현실은 자신의 존재를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명에인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세계가 원망스럽고 현실이 저주스러운 것이다. 더러는 忠諫이 용납되지 않아 汨羅水에 빠져 죽은 屈原을 생각하고, 이를 위로해 준

賈太傅의 낮을 그려보다가 赤松子가 득도한 신선의 세계를 갈망하기도 한다. 어느 때는 애절한 여인의 심정으로, 충신의 절의로, 환란에 빠진 새로, 난파당한 어부 등 서정적자아의 모습을 변형시키면서 시적 모티프를 다양하게 지시하였다.

本詞의 제1단락에는 작가가 처한 고난의 현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신을 楚客(굴원)으로 가정하고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백구와 어울려 살다보니 신선이 된 듯한 꿈도 꾸게되고, 더러는 님 생각도 하지만 궁중에 휘몰아치는 무서리 때문에 날씨는 겨울이라 푸른 옷소매는 옅어 차가운데 해질 녘 님에게 보내려는 난초를 꺾어 쥐고 긴 대에 의지하여 서 있는 화자의 모습은 유배지의 원한으로 자탄에 찌들린 형상이다. 그리고 제2단락에서도 헤어날 수 없는 현실과 참기 힘든 유배자의 고뇌를 토로하였다. 관계에 끝없는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억만장 늪에 빠져 하늘인지 땅인지 분간이 어렵다. 성문 모진 불에 玉石이 함께 타니 저물 녘 오동잎에 비가 내리고, 외기러기 홀로 울며 날아가는데, 자신을 화산의 새에 비유하였으며, 팔월에는 태풍이 일어 새집을 덮쳐 水火로 生離別死하니 삼천장이나 되는 백발이 하룻밤에 기는구나라 하여 유배지에서 가족들과의 생사이별의 비통함을 토로하였다.

제3단락에서는 풍파를 만난 동료들의 배가 무사한지 걱정하며, 자신은 만주별관에 떨어져 천지분간을 할 수 없다. 玉顏을 그리며 陽春을 기다리다가 홀로 눈비를 맞으며, 동류들의 그리움에 긴 옷소매를 적시네라고 하여 오직 세상천지에 홀로 있어 한없는 외로움에 비탄함을 노래하였다.

제4단락에서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늘이라며, 자신이 無罪하고 결벽한들 무엇하겠는가? 오뉴월 서리 같은 눈물이 어리어 원통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차라리 한 눈 없는 말처럼 체념하고 하늘이나 원망할까라고 하였다. 제5단락은 하늘같은 우리 님이 전혀 살피주지 않는다고 탄원하였다. 옛날의 큰 도적도 잘만살고 백이 같은 성인이 굶어 죽은 세상에 南柯之夢이 미워지며, 先山의 무덤과 나무들을 꿈속에 만져보니 조상의 성업을 계승할 수 없음에 구곡간장이 끊어질 것만 같다. 더구나 질병과 귀신들의 들끓는 호남의 누지에서 복풍을 맞으며 우는 자신을 돌보지 않는 우리 님이 한없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제6단락에서도 자신이 녹아지고 죽는 것은 玉皇上帝의 처분이라 하였다. 君恩의 자취가 없고 玉顏을 볼 수가 없어 자기 자신의 원분을 해소할 수 없으니, 죽어서 곤륜산 만장송이 되고 금강산 학이 되어 슬프게 우는 소리를 들어 줄 이도 옥황상제 처분이니 결국에는 녹아지고 죽어지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체념하였다. 여기서 옥황상제와 인간이라는 한계상황에서 현실의 절곡에 대하여 한탄이 있을 뿐 비판적 인식의 획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체념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다.

제7단락에는 님에 대한 회의와 변민이 교합되어 전개되었다. 님은 설중매로 변화한 자신을 반기지 않을 것이고, 고결한 몸으로 빈배를 타고 궁궐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사연마저도 天道가 막막하여 알 길이 없어, 꿈속에서 周公에게 묻고 싶으나 하늘이 높고 높아 구름위를 나는 새는 알지 않을까? 라고 하여 님의 은총을 기대 할 수도, 자신이 궁궐에 갈 수 있는 방안도 알길이 없으니 세상은 회의와 원망으로 가득한 현실이라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結詞에서는 자신을 이해하여 구원해 줄 님을 만나지 못하니 더 이상 연군의 정을 기대할 수가 없어 자신의 원분과 통한을 노래하는 만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자기의 뜻을 알아주는 이가 있으면 아무나 붙잡고 한 평생 같이 하겠다는 체념적 표현으로 자신에 대한 작은 소망으로 위로를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만분가>를 9단락으로 나누어 본 바, 서사는 이 작품의 도입으로 ‘님을 만나

가슴속에 맺힌 원분을 실컷 사되리라'는 創作動機를 노래하였다. 본사는 流配者의 고뇌와 작가의 衷情을 구가하였고, 가족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囹圄의 신세를 비탄하였으며, 이어서 同類들과 이별하는 슬픔으로 仰天歎息하고, 하늘을 우러르며 원분을 토로하였으며, 또 하늘같은 님을 원망하는 含憤畜怨을 읊었고, 서정적자아의 체념적 정서가 서린 哀訴와 懷疑를 그렸으며, 님에 대한 회의와 원망중에도 聖寵回復에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 結詞에서는 만분마저도 체념하고 山石되고 빗물되어 울면서 흘러가다가 자신의 衷情을 알아주는 이 있으면 오래도록 사귀며, 相感하겠다고 하여 자기를 각별히 총애해 준, 그리고 자기가 충성으로 받들었던 만분의 元祖인 님(성종)마저 버리고 떠나는 서정적자아는 우리 시가의 대표적 悲歌를 노래했다고 하겠다. 또한 이 작품의 작가의식은 다양하게 제시되는 다음의 素材들에서도 볼 수 있다. 소개명과 빈도 수를 소개하면, 梅(3), 蘭(2), 菊(1), 竹(2), 夢(5), 울다(5), 눈물(4), 死(5), 離別(2) 등이 있고, 자신을 비유하거나 처지를 나타낸 대상물은 五月飛霜, 杜鵑, 구름, 白鷗, 月, 외기러기, 우는새(3), 山, 石, 雨, 水, 萬丈松, 鶴 등이 있다. 그리고 怨憤之情을 나타낸 어구를 소개하면, 13행 傷心도 7이 없고, 14행 한숨은 무스일고, 37행 팔도 恨을 슯쳐보니, 38행 이별도 괴로워라, 52행 魚雁이 무정하니, 66행 冤氣로 니뢰로다, 68행 서룬 일도하고 만다, 71행 원분만 싸헛시니, 74행 하늘을 원망홀가, 78행 싱각거든 슬므어라, 100행 두어 소리 슬피우러, 102행 恨이 쏠희되고, 123행 어디 어디 우러 벨고 등 13구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만분가>의 내용을 형상화한 素材와 比喩物, 그리고 怨憤之情의 구절을 소개한 바, 소재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 9회, 죽음과 이별이 7회, 꿈속이 5회 등으로 나타나 화자의 悲痛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으며, 서정적 자아를 비유하여 두견, 백구, 학, 외기러기, 우는새 등 자유롭게 날 수 있는 鳥類와 산, 물, 돌, 비, 달, 구름, 서리, 소나무 등 自然物을 통하여 나타난 작자의 痛恨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冤氣로 니뢰로다', '怨憤만 싸헛시니', '하늘을 怨望홀가' 등 13구에 표현된 작자의 情緒는 發憤之情이라 할 수 있으며, 작가의식은 戀君쪽이 아닌 萬憤쪽에서 고찰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만분가>를 일반 유배가사와 동일시하여 忠臣戀君歌라는 입장에서보다는 작품 자체의 특이성이 고려된 怨憤歌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V. 結論

<만분가>는 일반 戀君歌로 보기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만분가라는 제목에서부터 그런 조짐을 받게 된다.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품의 창작 배경과 작품의 구조 분석, 그리고 작가의식을 심층 고찰하였다.

첫째, 창작 배경은 조위가 인생의 결실기에 일어난 황당한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유배 생활을 하는데서 이루어진다. 조위는 김종직 문하에서 文名을 얻었으며, 뛰어난 文材로 인하여 성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며,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점필재문집』 간행시 <조의 제문>을 책머리에 둔 것이 화근이 되어 賀正使로 연경에 간 매계를 압록강을 건너오거든 참수하라는 왕명이 내렸으나 李克均이 先王의 寵臣이라고 간청하여 죽음을 면하고 유배길에 오르게 된다. 의주를 거쳐 순천에서 답답한 5년여의 세월을 보내면서 철천의 원한을 삭이며, 끝없는 인생의 벼랑을 느끼며 중병으로 최후를 맞았다. 그리고 1년후 갑자사화때는 윤씨폐비교서를 작성한 죄로 부관참시를 당했다. 조위는 연약한 사립과의 한 사람으로 막강한

훈구과의 권력 앞에서 느낀 막막한 좌절감이 분노와 체념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런 원분의 심정은 <만분가>라는 유배문학을 생산하게 되었다.

둘째, <만분가>의 구조적 특성을 요약하면, 총 125행 247구의 장편 가사다. 3행은 單句로 형성된 과격을 이루었다. 작품구조를 크게 서사, 본사, 결사 등으로 나누고, 본사를 7단락으로 세분하여 전체를 9단락으로 분류하였다. 1)창작동기, 2)충정구가, 3)영어비탄, 4)양천탄식, 5)원분토로, 6)함분축원, 7)애소와회의, 8)성충회복, 9)만분과체념 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道家의 用語와 26회나 中國의 故事를 많이 인용하여 만분을 직소할 우회적이고 완곡한 상징적 표현기법을 동원하였다.

셋째, 작가의식은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소재, 비유물, 원분을 직소한 구절 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재들은 매난국죽, 꿈, 눈물, 죽음, 이별 등이고, 비유물들은 두견, 백구, 학, 외기러기, 우는새 등 鳥類와 산, 물, 돌, 달, 비, 구름, 서리, 소나무 등 自然物을 통하여 작가의 통환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13구에 달하는 많은 곳에서 발분의 정을 노래하고 있어, <만분가>의 작가 의식은 충신연군지사라는 입장에서 작품 자체의 특이성을 고려한 만분가라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만분가>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바, 기존의 연구 업적과는 크게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 특히 작품 내용을 고찰함에 있어 일반적 인식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작품의 독자적 특이성을 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만분가>의 경우도 작품 분석과 작가의식의 규명에서 이런 잘못을 발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 분야의 연구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권성준, 「유배가사의 미학적 접근」,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정범, 「송강가사와 屈原의 <離騷> · <思美人>의 비교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1993.
- 김정주, 「萬憤歌研究」, 『인문과학연구』 92권 1호,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1992.
- _____, 「조선조 유배가사의 연구」, 한남대 박사학위논문, 1994.
- 김주근, 「조위의 만분가 연구」, 『영남어문학』 14집, 영남어문학회, 1987.
-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 _____, 「梅溪 曹偉의 <萬憤歌> 研究」, 『古詩歌研究』 10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 문찬식, 「유배가사연구」, 『논문집』 1권, 광주경산전문대, 1981.
- 박일용, 「만분가의 형상화 형태-연군적 정서와 발분적 정서의 교합양상-」, 『한국고전시가작론』, 집문당, 1992.
- 순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昇平誌』, 정문사, 1988.
- 이가원, 「만분가 연구」, 『동방학지』 6집, 연세대, 1963.
- 이상무, 「유배가사연구-내용과 변화를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상보, 「한국가사문학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4.
- 이상보 편, 『한국가사선집』, 집문당, 1979.
- 임종걸, 「매계 조위의 생애와 詩世界」, 안동대 석사학위논문, 1993.
- 전일환, 「시조 · 가사에 나타난 도가사상」, 『한국언어문학』 21집, 한국언어문학회, 1982.
- 정석봉, 「유배가사고-만분가, 낙지가, 북관곡, 만연사, 북천가를 중심으로-」, 『어문교육』 1권, 어문교육연구회, 197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3.
- 조 위, 『梅溪集』, 계명문화사, 1988.
- 최상은, 「<만분가>와 <사미인곡>의 작품구조와 작가의식」, 『영남어문학』 15집, 영남어문학회, 1988.
- 최종식, 「유배가사연구-만분가, 별사미인곡, 속사미인곡, 만연사 등-」, 우석대 석사학위논문, 1994.

<Abstract>

A Study on the content of "Manbunga"

Ryu, Yeon-seok

The automatic concept that "Manbunga" must be "Yeon-gun-ga-sa" because of the author's origin as a Korean noble class so called "Yangban" is not always correct, especially in this case "Manbunga".

The intensive efforts to research on the author's biographical environment had made to understand the author's exact intention to write "Manbunga".

To get a grip on the content of "Manbunga", the work on a understanding the sentenc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of "Manbunga" had been required`.

The most important thing has found from this research is that the author's emotion to the king during the work on "Manbunga" was not the same as other authors who wrote the "Yeon-gun-ga-sa" expressing their loyalty with love to the king. The "Manbunga" had written by the author who had a loyalty with anger to the king.

The new approach to understand "Manbunga" has been possible by this additional consideration and efforts above.

Key words : Manbunga, Yeon-gun-ga-sa, Sangae, Gu-seong, Eui-sic, Bal-bun-eui-jeong